

다니엘서 - 번호 62

윌리엄 밀러의 예언적 비전의 보석을 드러내기: 재림주의의 '큰 빛'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참된 토대로 돌아가라는 부름

Jeff Pippenger
2024-01-26

윌리엄 밀러의 꿈에 나타난 보석들은 밀러주의자들의 역사 속에서 빛났던 것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날 것이다. 그들의 역사 동안 증가된 지식에 대한 밀러주의자들의 이해는 정확했지만, 불완전했다. 그들의 이해를 더욱 정확한 역사적 맥락에 두면 더 심각한 함의가 드러나는데, 이는 그 보석들이 나타내는 예언적 진리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열 처녀에 대한 시험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밀러주의자들의 이해는 두 개의 개척자 도표(1843년과 1850년)에 표현되어 있다. 두 도표는 하박국 2장에 예언된 '판'의 성취였고, 그 도표들이 하박국의 성취였다는 사실과 또한 바로 그 진리들이 재림주의의 기초 진리들이라는 사실은 예언의 신에 의해 그렇게 확인되었다.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 이후, 밀러파가 하늘 성소와 그 성소와 관련된 진리를 이해하도록 인도되면서, 몇 가지 근본 진리에 대한 이해는 더 큰 빛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856년에 재림운동이 라오디게아 상태로 전환하고 1863년에 결국 "일곱 때"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라오디게아의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 1850년대 이후로 재림운동을 통해 의미 있는 진리가 새롭게 제시된 적은 없다. 그 주장에 의문이 든다면, 왜 그것이 잘못된지 밝혀보라.

밀러주의자들은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이해에서 옳았지만, 그들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다. 재림주의는 결코 밀러주의자들의 이해를 넘어가지 못했다. 오늘날에는 다니엘서 2장에 표상된 여덟 왕국 모두를 볼 수 있으며, 느부갓네살의 꿈의 비밀을 깨닫고자 기도한 다니엘의 상징적 의미 역시 볼 수 있다. 그 비밀은 최종적인 예언의 비밀을 나타내며(모든 선지자들은 말세를 가리키고 있다), 그 마지막 예언의 비밀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비밀은 '때가 가까웠다'고 할 그때, 곧 은혜의 시간이 마감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며, 지금 보기를 선택하는 이들에게 그 봉인이 풀리고 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the daily'에 대한 밀러파의 이해는 영감에 의해 옳다고 확인되었지만, 1901년쯤에 이르러 재림주의는 그 기초적 진리를 거부하는 과정을 시작했고, 1930년대에는 재림주의가 'the daily'가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의 어떤 측면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옛 개신교적 견해로 되돌아갔다. 그 사탄적인 견해는, Spirit of Prophecy에 따르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에게서 온 것이다. 오늘날 'the daily'에 대한 올바른 밀러파적 견해는 이교의 상징일 뿐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가져오는 재림주의의 반역의 상징으로도 보일 수 있다.

밀러주의자들은 이천삼백 년이 끝나는 정확한 날짜로 인도되었고, 대실망 직후 재림운동은 그 예언과 관련된 더 큰 빛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1856년부터 1863년에 '일곱 때'를 거부하였고, 오늘날까지도 자신들이 중심 기둥이자 기초라고 주장하는

교리에서 어떤 진보하는 빛도 보지 못했다. 오늘날 '일곱 때'는 (보려는 이들에게는) 이천삼백 년 예언의 각 기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 49년은 땅이 매 일곱째 해에 쉬는 주기가 일곱 번 반복되는 것을 나타낸다. 490년은 고대 이스라엘을 위한 시험의 기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땅을 쉬게 하라는 명령에 대한 반역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어 땅이 쉬지 못한 해가 합계 70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 준다(그 70년이 바로 그 반역에 대한 포로 기간이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그 주간은 십자가까지 3년 반과 십자가 이후 3년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모으고 계셨는데, 그가 들려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31, 32.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시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으신 2,520일은, 그분의 언약을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반역한 백성을 흠으신 2,520년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북왕국을 상대로 시행된 '일곱 때'는 기원전 723년에 시작되어 1798년에 끝난 2,520년의 흠어짐을 나타냈다. 538년은 이 두 기간을 나누어 연속된 1,260년의 두 기간을 만든다. 첫 번째 기간은 이교에 의한 성소와 군대의 짓밟힘을, 두 번째 기간은 교황권에 의해 이루어진 짓밟힘을 나타낸다.

남왕국을 향한 2,520년의 "일곱 때"는 기원전 677년에 시작되어 1844년 10월 22일에 끝났다. 그것은 언약의 저주의 상징이며, 속죄일에 불리게 되어 있던 희년 나팔의 울림으로 종결되었다.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반표상적 대속죄일은 한 기간을 의미한다. 그것은 조사심판의 기간이며, 그 기간 동안 일곱의 거룩한 주기와 관련된 희년 나팔이 울려야 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때에, 그가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 10:7.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일곱째 나팔의 울림은 레위기 25장에 제시된 대로 일곱의 거룩한 주기의 희년 나팔을 상징한다. 밀러주의자들은 결국 2300년 예언의 연대 계산에 대해 옳았고, 재림주의는 대실망 직후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밀러의 '보석'인 2300년 기간은 오늘날 열 배 더 밝게 빛나고 있다. 2300년 기간 안에 나타난 일곱 시기의 모든 예언적 특징은 레위기 25장과 26장의 2,520년('일곱 때')과 직접적인 예언적 연결을 가진다.

밀러파는 배도한 개신교와 가톨릭이 "네 백성의 약탈자들", 곧 "스스로 높아졌다가" "넘어진" 자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한다고 한 주장을 거부했고, 그들은 옳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환상을 확증한 네 백성의 약탈자들"로 표현된 것이 로마이지, 환상을 확증한 것으로 여겨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은 어떤 시리아의 왕이 아님을 알고 그것을 옹호했다.

오늘날 재림교 신학자들은 '네 백성의 약탈자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가르친다. 오늘, 밀러파 역사에서 제쳐지고 있던 옛 언약의 백성은 그 이상('네 백성의 약탈자들'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확립되는)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던 그

논거가, 다시금 제쳐지고 있는 옛 언약의 백성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18.

밀러파는 레위기 26장의 이천오백이십 년('일곱 때')이 성경에서 가장 길고 마지막 기간 예언이라고 올바르게 가르쳤으나,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1863년에 그 '보석'을 거부했으며, 오늘날에는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일곱 때'를 가장 긴 기간 예언으로 규정한 밀러파가 옳았을 뿐만 아니라, '저주', 곧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에게 집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다니엘서가 다루는(다른 예언자들도 그러하듯) 그 두 가지 진노의 각각의 결말은, 그리스도께서 밀러파 성전을 세우셨던 46년의 기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루는 두 끝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모세가 광야 성막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기 위해 산에 머물렀던 46일과,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그가 '부활'하는 것에 관해 그리스도와 나눈 대화에서 바리새인들이 언급했던 헤롯의 성전 개축 46년, 그리고 46개의 염색체로 창조된 그의 인간 성전의 부활로 예표되어 있다. 오늘날 밀러파의 기초 진리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정확하지만, 이제는 열 배나 더 심오하다.

오늘날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자신을 팔모니('기묘한 계산자' 또는 '비밀을 세는 자')로 소개하셨을 때, 2300년을 나타내는 환상과 2520년을 나타내는 또 다른 환상 사이의 연결을 제시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예언적 기간의 관계를 인식하면, 그것들이 교황권의 1260년 통치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이는 다시 다니엘서 12장의 1290년과 또한 같은 절의 1335년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의 두 환상과 관련된 예언적 기간들 사이에는 훨씬 더 많은 직접적인 연결이 있지만, 그것들은 보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알아본다. 그러나 오늘날, 그 두 환상이 함께 제시하는 모든 기간들의 연결을 넘어, 팔모니('기묘한 수를 헤아리는 이', 또는 '비밀을 헤아리는 이')라는 이름의 계시가 드러나 있다. 밀러파는 그 두 절에 대해서는 옳았지만 한계가 있었고, 오늘날 재림주의는 그야말로 완전한 흑암 속에 있다.

너희는 멈추고 놀라라; 소리 지르고 또 소리쳐라. 그들은 포도주로 취한 것이 아니어도 취하였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어도 비틀거린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깊은 잠의 영을 부으시고 너희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다.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 또 선견자들을 그가 가리셨다.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글과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학식 있는 자에게 건네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는 이르되 '봉인되었으므로 나는 읽을 수 없다' 하고, 또 그 책을 배우지 못한 자에게 건네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는 이르되 '나는 배우지 못하였다' 하느니라. 이사야 29:9-12.

화이트 자매는 윌리엄 밀러가 요한계시록에 관해 '큰 빛'을 받았다고 밝히지만, 그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7장, 18장에 대해 이해한 바는 아주 단순히 말해 옳지 않았다. 그 잘못된 이해들은 두 개의 거룩한 도표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9장에서 제시된, 이슬람이 세 가지 화로 상징된다는 그 '보석'은 실려 있다.

"설교자들과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신비롭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이 마지막 때에 살게 될 이들에게 특별한 유익을 주기 위해, 그들이 자신의 참된 위치와 의무를 파악하도록 인도하려고 주어진 계시임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의 마음을 예언들로 이끄시고,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그에게 큰 빛을 주셨다." Early Writings, 231.

화이트 여사의 저술에 나오는 "큰 빛"이라는 표현은 매우 많은 것을 알려 준다. 밀러는 요한계시록의 교회들, 인, 나팔을 이해했는데, 이는 거룩한 천사들이 이 주제들에 관해 그의 마음을 "인도했다"는 까닭이다. 밀러에게 주어진 "큰 빛"은 두 개의 거룩한 표에 표상되었고, 그 "큰 빛"이었던 교리적 진리들은 그의 꿈에서 "보석"으로 묘사되었다. 재림주의는 그 "큰 빛"을 받았으나 1863년부터 그것을 가짜 보석들로 덮어 감추기 시작했다. "빛"의 원칙은, "빛"이 그리스도께서 개인이나 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기준이라는 점이다.

"빛"은 한 백성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가질 수 있었던 "빛"도 심판한다(그들은 1856년에 저항했는데, 이는 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빛"과 관련된 또 다른 속성은, 거부된 "빛"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어둠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재림주의는 하나님이 밀러에게 주신, 재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큰 빛"을 거부하고 은폐했다.

겉으로 드러난 것 너머를 보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께서는 '큰 빛'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그들의 도덕적, 영적 상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택하였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한다. 나 또한 미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렀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였을 때 듣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불의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사야 66:3, 4; 데살로니가후서 2:11, 10, 12.

하늘의 교사께서 물으셨다: '실제로는 세속적 방침에 따라 여러 일을 추진하며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 주신다고 가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더 크게 미혹하는 기만이 무엇이 있겠느냐? 오, 이는 큰 속임수요,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기만이다. "한때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그 영과 능력으로 착각할 때, 또한 자신들이 부요하여 재물이 늘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 실상은 모든 것이 필요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말이다.' 증언, 제8권, 249, 250쪽.

재림교회는 1856년에 라오디게아가 되었는데, 라오디게아는 한때 "큰 빛"을 받았으나 데살로니가후서의 "강한 미혹"을 받게 되어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위조된 동전과 보석을 들여와 세운 거짓된 기초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줄곧 믿지만, 사실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기초이다. 재림교회는 "큰 빛과 큰 증거를 받아온 교회"이지만, "주께서 보내신 기별"을 버린 "교회"이며, 그 후로는 "가장 불합리한 주장들과 거짓 가정들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였다.

성화되지 않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고 있다. 그들은 한 입으로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신을 칭송한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면서, 바라바를 끌어안고, 그들의 행위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다'라고 말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은 삼가 주의하라. 사탄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랑해 왔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그 연합을 깨뜨리려 한다. 그는 말한다. '내가 나아가 속일 수 있는 자들은 속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작하는 거짓 영이 되겠다.' '큰 빛을 받아 온 교회', 곧 큰 증거를 받은 교회가 속임과 거짓 증언의 아들을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주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버리고, 가장 불합리한 주장과 잘못된 가정과 그릇된 이론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탄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지옥불 햇불에서 옮겨 붙인 거짓 예언의 햇불을 손에 들고 우리의 강단에 설 것이다. 의심과 불신을 품고 귀히 여기면, 자신들이 많은 것을 안다고 여기는 백성에게서 신실한 목회자들이 거두어질 것이다. "네가 알았더라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너라도, 적어도 오늘 이 날에, 네 평안에 속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네 눈에서 숨겨져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터는 굳게 서 있다.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 거룩히 구별된 사역자는 그의 입에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 그는 대낮처럼 투명하고, 모든 악의 오점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거룩히 구별된 사역과 출판 사업은 이 패역한 세대에 진리의 빛을 번개처럼 비추는 능력이 될 것이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더 많은 빛이 필요하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리라.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군대를 모아,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듣게 하라.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분은 더 큰 빛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장하고 장비를 갖추어 전장으로 올라오게 하라—주를 도와 강한 자들을 대적하는 싸움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모든 거짓된 혀는 잠잠해질 것이다. 천사들의 손이 꾸며지고 있는 속임수의 계획들을 뒤엎을 것이다. 사탄의 보루는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승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따를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듯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승리할 것이며 모든 반대 세력은 패배할 것이다. 하늘에서 보낸 기별을 가지고 그들에게 온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어떤 영혼도 불평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흠을 잡으며 "그들은 너무 단정적이다, 말이 너무 강하다"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들이 강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이나 그분의 기별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규탄하실 것이다.

"사탄은 우리 백성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으며 그것을 버리라고 권면하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 놓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갈 한 무리가 있다. 우리 가운데서 나가 더 이상 그 궤를 메지 않을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진리를 가로막는 장벽을 세울 수는 없다. 진리는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며 더욱 높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지금도 그분의 분부를 행하도록 준비되어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회반죽을 발라 놓은 벽에 불과한 제한들을 뚫고 나아갈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을 부으시면, 그들은 일할 것이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팔 소리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진리는 그들의 손에서 약화되거나 그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 줄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증언, 409-411쪽.

"the daily"의 사탄적 상징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한입으로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신"을 함께 찬양하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바라바를 끌어안고, 그들의 행위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말한다. 밀러의 꿈에서 "보석들"로 표현되고 거룩한 두 개의 판 위에 도해된 그 진리들은 밀러에게 주어진 "큰 빛"이며, 재림주의가 거절한 것이다.

그들은 사탄의 상징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자칭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토대 위에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것은 그 잘못된 교리적 구조 위에서 서는 모든 이들에게 강한 미혹을 가져오는 가짜 토대일 뿐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현대 이스라엘은 단지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적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을 뿐이다.

내 영혼을 짓누르는 한 가지 일이 있다: 빛과 진리에 지속적으로 저항한 결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큰 결핍과, 증거 위에 증거가 쌓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의 역사를 상쇄하려는 영향을 행사해 온, 활동적으로 일해 온 이들의 영향이다. 나는 그들에게 유대 민족을 가리키며 묻는다.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 형제들이 맹목적인 저항의 같은 길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어느 때든 한 백성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울려 퍼지게 할 참되고 신실한 파수꾼들을 필요로 했다면, 바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이다. 큰 빛과 복된 기회를 받았고, 특권에 있어 가버나움처럼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은 자들이, 개선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어진 빛의 크기에 상응하는 어둠 속에 버려져야 하는가?

총회에 모일 우리의 형제들에게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청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눈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주제는 거듭거듭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불만은 개혁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깊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재물이 늘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교회들은 자기기만의 죄를 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신앙생활은 거짓입니다. Manuscript Releases, 제16권, 106, 107.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자신의 도시로 삼으신 곳이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는 오가시던 여정들 사이사이에 머무르셨고, 그래서 그곳은 '자기 동네'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곳은 갈릴리 바다의 기슭에 있었고, 실제로 그 평야 위에 있지는 않더라도 아름다운 게네사렛 평야의 경계 가까이에 있었다. 시대의 갈망, 252.

그리스도께서는 옛적에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처럼 가버나움을 택하셨다.

또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리니, 이는 내 종 다윗이 예루살렘, 곧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 성에서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열왕기상 11:36.

그리스도께서는 1844년에 재림주의를 자신의 도성으로 택하셨고, 1863년까지 재림주의는 라오디게아적 안일과 부요의 상징인 '여리고'라는 도시를 재건했다. 고대 이스라엘이 그랬듯,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재림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성의 시민이라고 믿지만, 그 시민권을 입증해 주는 '큰 빛'을 거부했다. 엘리와 홉니, 비느하스 시대의 실로와 같이, 재림주의는 그들이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졌던 '큰 빛'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서 얼마나 인내가 적게 드러났고, 얼마나 많은 쓰디쓴 말이 오갔으며, 우리 신앙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규탄이 쏟아졌는가.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많은 이들이 다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큰 죄인으로 여겨 왔다. 다른 교회 교인들을 이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들이 정죄하는 이들은 빛을 거의 받지 못했고, 기회와 특권도 거의 없었을지 모른다. 만일 그들이 우리 교회들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받아 온 그 빛을 받았더라면, 훨씬 더 크게 진보했을 것이며, 세상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더 잘 드러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빛을 자랑하면서도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너, 가버나움[큰 빛을 받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아, 네가 [특권에 있어서]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해진 능한 일들이 소돔에서 행해졌더라면, 그 성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대하여,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행하리라. 또 내가 에브라임의 온 자손, 곧 너희의 모든 형제를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기관들을 세우셨고, 그 기관들은 세상의 기관들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 그 기관들은 멸망해 가는 영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 아래, 오직 그의 영광만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증언이 임했으나, 많은 이들이 책망과 경고와 권면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이것을 들으라, 오 어리석고 깨달음이 없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로 모래를 두어 영원한 규례로 삼아 그것이 넘지 못하게 하였나니, 그 물결이 비록 스스로 솟구칠지라도 능히 이기지 못하며, 비록 떠들어도 능히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배반하고 떠나갔도다.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자, 그는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우리에게 추수의 정한 주간들을 지켜 주신다, 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의 불의가 이 모든 것을 돌려보냈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서 좋은 것을 막아 버렸느니라. . . . 그들은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판결하지 아니하면서도 형통하며, 궁핍한 자의 권리를 재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같은 나라에 내 영혼이 보응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며, 내게 중보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소나기가 거두어지고 늦은 비도 없었느니라. ... 이제부터라도 너는 내게 “나의 아버지여, 주께서는 나의 젊은 때의 인도자이시니이다” 하고 부르짖지 않겠느냐?’ Review and Herald, 1893년 8월 1일.

다음 기사에서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윌리엄 밀러에게 주어진 '큰 빛'에 대한 우리의 고찰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종교를 본보이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를 다스려야 할 원칙들을 높이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게 큰 빛을 받아 온 자들 속에 거짓이 너무도 깊이 뿌리내려, 그들은 더 이상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고, 진리를 위해 전통을 내려놓으려는 마음도 없었다. 그들은 하늘의 스승을 거절하였고, 자기들의 관습과 고안을 지키고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그와 같은 정신이 오늘날 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전통이 흔들리고 새 질서가 들어올까 두려워 진리를 연구하기를 꺼린다. 인류는 늘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사상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반면, 신성하고 영원한 것은 분별하지도 귀히 여기지도 않는다."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47쪽.